

투데이칼럼

잘 듣는것이 말 잘하는 요령

말은 많이 한다고 큰 소리 치더라도 잘하고 똑똑한 것이 아니고 대화에서도 공감에 매우 중요하다. 대화란 하면 자기합리화 자기의견만 하는 피곤한 사람이 있다. 대화는 공감을 통해 상호 소통이 중요하고 그 대화의 효과가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전환반응"이라고하는데 모든 대화를 "나"로 전환시켜 자신의 얘기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요즘 몸이 안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도 안좋은데!" 라고 말하는 것이다. 끈임없이 상대의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로 바꿔 버리는 이런식의 대화는 우리를 지치게 한다. 좋은대화는 "어디가 안좋아?"



김양욱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라고 물으면 상대의 마음 속으로 한걸음 더 들어가는 것이다. 정신과 문턱이 높을 때 유독 사람들이 집집을 많이 찾던 이유 역시 꼭 그럴듯한 해결책을 찾기위해서가 아니다. 점쟁이야말로 내 말에 온 신경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을 털어 놓는 것 만으로도 이미 위로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화 중 잘못된 정보 가 있다고 해도 중간에 끼여 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야 한다. 늘 징징거리는 사람은 정작 타

인의 울음을 듣지 못한다. 자신의 내부가 너무 시끄러우면 타인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이때 상대의 말을 듣기위해 필요한 것 적당량의 침묵이다. 대화에서 내가 어떤 말을 "기억"하느냐. 말없이 친구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친구가 울 때 손을 잡는게 전부였는데도 말이다. "내가 이야기꾼이냐면 그건 내가 듣기 때문이고 이야기꾼은 전달자라고 생각해요"

소설이 써지지 않을 때 나는 소설가이자 미술평론가인 존버거(John Berger)의 말을 떠올린다. 대개 좋은 화자는 잘 듣는 사람이다. 듣고파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결국 상대도 침묵에 갇든 내 마음을 듣게 된다. 잘 듣는것이 말 잘하는 것이다. 대화의 달인들은 항상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상대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상대의 마음을 공략하고 욕구에 맞는 말감을 준비하여 침착하게 하는 것이다. 들을 聽(청)은 耳+王 듣는 것을 임금처럼 듣고 "(十目) 열 개의 눈으로 들어가"(一心) 하나의마음으로 들어가" 라고 들어 볼 수 있다. 소통의 중요 요소도 공감, 관심 경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잘 듣기로 잘 소통하고 말을 잘 하는 사람이 되자.

사설

전주종합리싸이클링 문제

약취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통합 약취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치를 유지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4단 활성탄 흡착탑 2개를 신설하고 잔반적인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개선책이 제시됐다. 운영을 맡은 (주)태성환경연구소는 "리싸이클링타운 내 하수슬러지처리 시설, 재활용 선별 처리 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약취를 저감하기 위해 약취 발생 공정, 약취 방지 시설을 진단했다"고 했다. 약취 방지 시설 시스템 및 최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컨설팅 한 결과와 열 개의 눈으로 들어가(一心) 하나의마음으로 들어가" 라고 들어 볼 수 있다. 소통의 중요 요소도 공감, 관심 경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잘 듣기로 잘 소통하고 말을 잘 하는 사람이 되자.

대표 등 주민들은 사업장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설 개선 후 약취가 발생할 경우 대안이 무엇인가"고 따져 물었다. 특히 "가동 때부터 기계·설비 고장으로 작동이 안 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신공방으로 다시 건립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활성탄 흡착탑 등을 설치하려면, 가로 30미터, 세로 30미터(272평) 건축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리싸이클링타운 부지는 단 1평의 건축물도 추가로 세울 건폐율이 없다.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미 부지의 20%를 깎 채워 건축했기 때문이다. 결국 현 상태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다. 전주시와 에코비트워터의 컨설팅 결과는 주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전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어떤 대안으로 복합 약취를 기준치 이하로 개선할지 주민들에게 먼저 설명하기 바란다.

정부의 전북사업 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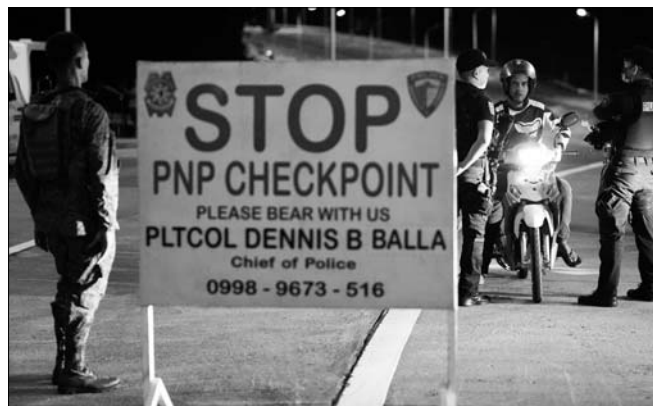
전북 사업들이 줄줄이 외면당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던 '군산형 일자리와 금융 중심지'가 표류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효과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금융 중심지도 정부의 외면을 받고 있는 처지다. 전라북도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GM이 철수한 곳에 중견기업, 강소기업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군산형 일자리였다. 전북 경제를 이끌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군산형 일자리 지정 4년의 결과는 초라하다. 당초 2024년까지 32만 대의 차량 생산을 내세웠지만, 지난해까지 생산은 고작 2천여 대다. 1700여 명 목표의 고용은 287명에 그쳤다. 에디슨모터스는 사주가 구속되며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주)명신도 해외 계약 논의만 들려올 뿐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업 지원과 연구 개발에 수천억 예산이 들어가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전라북도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달 정부 추진위원회에서 언급조차 안되며 외면 받은 전북 금융 중심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었다. 부산이 지난해 전담팀을 구성해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한 것과 대조적으로 전북은 안일한 대처로 번번이 기회를 놓쳤다. 전북은 올해 2월에서야 금융도시 추진위원회가 출범했고 납득할 수 없는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어 과연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사업 추진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핵심 미래 사업들의 추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획과 실적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더 이상 가시면 위험합니다”



10일(현지시간) 필리핀 알바이주 디라가 마을의 마운 화산 주변 '위험지대' 경계 검문소에서 경찰이 오토바이 탑승자를 멈춰 세우고 있다. 마운 화산 폭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근 마을 주민 약 1만5000명이 트럭을 이용해 대피했다.

일본 자위대 사격장서 총격, 6명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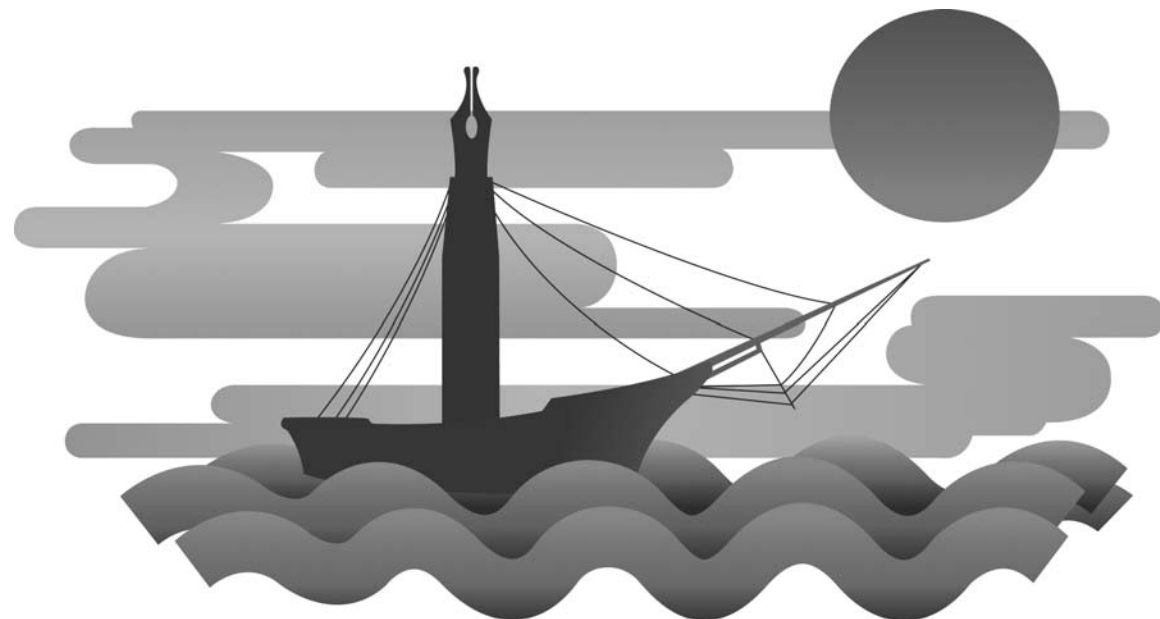


14일 일본 중부 기후의 육상자위대 사격장에서 총격이 발생한 후 소방 당국 차량이 사격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한 자위대 사관후보생(18)이 자동소총을 발사해 대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 중 1명이 숨졌다. 나머지 2명도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